

2026년 9월 홍콩관광시장 리포트

PART 1 관광통계

□ '26년 8월 관광통계 분석 및 '26년 9월 전망

- '26년 8월까지 홍콩 방한객은 495,68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 상승
- 여름방학, 하계휴가로 인한 하계 성수기(7~8월) 견조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해외여행 비수기인 9월부터 증가세 둔화 전망

□ 방한 홍콩인 관광객 수

- '26년 1~7월 '19년 동기 대비 7.7%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7.48%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37,710	47,197	59,364	70,802	59,888	65,690	76,237						416,888
2025	44,278	30,270	44,030	64,591	51,363	56,109	64,224	64,860	40,879	44,671	49,635	68,239	623,149
2024	25,755	35,458	49,235	42,654	45,790	54,449	58,305	61,864	40,033	52,439	46,766	58,670	571,418
2023	26,777	16,237	27,155	38,138	28,617	31,874	39,527	43,031	30,424	41,375	38,052	42,777	403,984
2019	35,896	51,312	46,068	76,104	57,026	61,728	59,036	65,958	45,911	65,544	58,600	71,751	694,934

*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 방홍 한국인 관광객 수

- '26년 1~7월 '19년 동기 대비 61.8% 수준 회복,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129,083	96,260	82,425	64,530	58,539	31,791	41,168						503,796
2025	126,739	121,523	90,102	62,155	73,233	52,364	50,770	55,884	49,789	91,979	96,160	92,918	963,616
2024	100,022	84,707	67,393	63,804	56,604	47,223	48,089	60,032	64,796	78,822	85,029	96,705	853,226
2023	6,782	14,204	19,312	21,112	25,909	25,052	29,540	34,356	42,165	48,254	62,256	74,057	402,999
2019	161,115	143,804	136,225	97,710	106,017	92,229	78,210	72,166	40,684	45,591	35,402	33,387	1,042,540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홍콩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항공, 페리, 철도이동 등 모두 포함

- '26년 1~7월 '19년 동기 대비 27.1% 증가, 전년 동기 대비 8.02%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1,020,038	9,422,176	10,553,190	11,182,960	10,526,034	9,942,434	10,049,028						71,877,860
2025	9,665,937	7,845,160	9,691,689	10,500,935	9,739,974	9,450,365	9,648,151	10,308,328	8,841,501	10,161,382	10,270,382	11,418,191	117,541,995
2024	7,467,866	7,531,411	9,291,001	7,918,944	8,276,352	9,026,294	8,751,788	9,377,046	8,425,953	9,114,783	9,209,817	10,311,374	104,702,629
2023	1,657,751	3,608,113	5,326,148	6,357,321	5,743,364	6,031,857	6,810,259	7,160,569	6,309,797	6,958,609	7,447,015	8,792,558	72,203,361
2019	7,740,202	7,158,465	8,200,626	9,003,627	8,141,938	8,317,071	7,972,662	7,565,745	7,459,267	7,415,097	7,216,573	8,526,688	94,717,961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항공” 이용 홍콩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 ‘26년 1~7월 ‘19년 동기 대비 90.3% 회복,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807,584	943,368	988,515	1,030,615	927,601	975,273	1,141,310						6,814,266
2025	987,169	730,359	871,688	1,176,616	936,205	950,682	1,054,326	1,081,042	790,245	959,946	919,632	1,231,000	11,688,910
2024	722,035	850,802	1,016,345	796,307	892,035	1,017,652	1,108,359	1,056,080	824,952	903,312	919,000	1,171,033	11,277,912
2023	564,915	438,491	634,760	764,369	709,969	804,488	966,249	919,504	732,974	800,701	808,093	1,053,332	9,197,845
2019	870,548	959,648	971,690	1,240,660	1,090,184	1,182,381	1,233,244	1,112,268	952,674	1,012,058	1,038,742	1,304,097	12,968,194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홍콩 방문 인바운드 관광객 수

○ ‘26년 1~7월 ‘19년 동기 대비 77.9% 회복, 전년 동기 대비 11.38%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4811,700	5,141,714	4,354,229	4,217,311	4,464,840	3,722,694	4,503,842						31,216,330
2025	4,742,066	3,667,671	3,818,512	3,847,934	4,078,938	3,480,979	4,390,514	5,152,837	3,292,197	4,588,515	4,189,272	4,645,397	49,894,832
2024	3,825,617	4,001,190	3,401,991	3,391,381	3,398,458	3,132,598	3,921,630	4,453,877	3,062,003	4,090,054	3,568,437	4,255,551	44,502,787
2023	498,689	1,461,969	2,454,093	2,892,256	2,828,384	2,748,488	3,588,530	4,077,746	2,771,826	3,458,778	3,288,915	3,929,986	33,999,660
2019	6,784,406	5,589,628	5,860,346	5,577,201	5,916,541	5,143,734	5,196,969	3,590,571	3,104,049	3,311,571	2,626,127	3,191,466	55,892,609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경쟁국 방문 현황(‘26.1~7월)

○ 전년 동기 대비 일본 8.5% 증가, 대만 -5.2%, 태국 -0.35%, 싱가포르 -7.1%

○ ‘19년 대비 일본 19.5% 증가/ 대만 70.4%, 태국 60.3%, 싱가포르 67.9% 회복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일본	‘26	200,048	233,900	216,300	226,000	207,900	214,300	272,500					1,570,977
	‘25	243,700	195,500	208,400	263,600	193,100	166,800	176,000	226,100	149,500	196,000	207,600	2,517,369
	‘24	186,300	205,900	231,400	184,500	217,500	250,600	279,100	246,600	170,200	198,800	227,062	2,683,438
	‘19	154,292	179,324	171,430	194,806	189,007	209,030	216,810	190,260	155,927	180,562	199,700	2,290,748
대만	‘26	76,023	81,833	92,887	107,973	85,809	83,354	108,860					636,739
	‘25	89,391	78,870	84,521	126,554	96,859	94,236	101,602	129,122	74,649	98,688	93,386	1,203,733
	‘24	81,020	92,848	124,375	84,543	87,241	101,696	104,642	127,837	81,089	86,715	92,567	1,198,217
	‘19	93,187	106,441	117,545	170,484	128,377	137,074	151,395	164,668	106,150	116,971	129,635	1,598,223
태국	‘26	40,346	55,659	47,371	55,094	47,433	44,342	71,308					361,553
	‘25	69,047	43,411	37,395	52,965	41,826	51,345	66,823	72,802	40,295	50,513	51,004	643,158
	‘24	47,831	67,278	78,463	59,401	64,981	81,602	97,896	107,831	59,891	62,126	66,244	876,076
	‘19	60,464	80,543	74,295	88,945	84,897	102,546	108,027	121,806	77,951	74,740	78,574	1,045,198
싱가포르	‘26	19,420	22,100	25,500	34,550	23,960	25,550	38,210					189,290
	‘25	25,870	21,230	23,380	34,550	32,810	27,750	38,200	38,780	22,470	26,180	25,070	337,650
	‘24	23,420	26,510	35,790	24,040	23,830	23,830	33,770	35,680	26,610	25,200	24,540	329,330
	‘19	30,056	38,921	34,355	52,203	36,424	36,216	50,806	52,767	35,348	36,059	40,381	488,482

* (출처) 각국 관광청. 일부 통계는 확정치 통계가 아닌 추정치 통계임.

□ **홍콩 첫 5개년 계획(2026~2030) 발표**

- 홍콩정부는 9월16일 첫 5개년 계획을 발표함. 홍콩이 중국 5개년 계획에 맞춰 자체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본토 5개년 계획과 동일한 평가 체계(예측성·구속성 지표)를 도입했으며, 시정보고서는 이를 이행하는 실행 과제로 위상이 정리됨
- 이번 5개년 계획은 행정장관 임기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중장기 목표를 명시한 것으로, 지도부가 바뀌더라도 정책 연속성을 보장해 투자자에게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옴. 존 리 행정장관은 계획경제로의 전환이 아니며 경제체제도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함
- 총 105개 지표 중 22개 주요 지표는 예측성 목표 17개와 구속성 목표 5개로 구분됨. 구속성 목표는 탄소배출 감축 등 환경 분야 4개와 북부 도시권 착공 가능 부지 900헥타르 확보 1개로 구성됨
- 주요 목표로는 혁신 지출을 GDP 대비 1.63%에서 3%로,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을 3.8%에서 5.5%로 확대하는 등 신성장동력 육성에 중점을 둬. 핵심 위상으로는 국제 금융·해운·무역·혁신기술 센터와 고급 인재 허브(4개 센터, 1개 허브)를 제시함
- 핵심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 ① 북부도시권 개발 가속: 선전 접경 북부도시권을 혁신기술 산업 부지와 대학 타운이 결합된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며, AI·로봇 등 분야별로 특화된 대학 타운 3곳을 계획함. 5년 내 착공 가능 부지 900헥타르(현재의 7.5배)와 주택 7만 호 완공을 목표로 함
 - ② 역외 위안화 허브 강화: 금융 전략의 중심에 역외 위안화 허브 역할 강화를 두고, 유동성 개선과 위안화 표시 상품 확대 등 5개 조치를 제시함. 정부 지출의 위안화 결제 검토도 포함됐으며, 후강통(상하이-홍콩 주식 시장 교차거래 제도) 등 주식·채권·자산관리 상호연결(Connect) 제도를 넓혀 본토와의 금융 연계를 심화할 계획임
 - ③ 금융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금융 출발점으로 한 원자재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 100억 홍콩달러 규모의 혁신기술 산업 지향 펀드를 설립하는 등 금융을 기술·실물산업 육성에 연결하는 방향을 제시함

- **홍콩 4분기 순고용전망치 14%로 급반등: 경제 성장에 따른 채용 심리 회복**
- 인적자원 기업 매파워그룹(ManpowerGroup) 조사에 따르면, 2026년 4분기 홍콩의 계절조정 순고용전망치(NEO)는 전분기(-9%) 대비 23%포인트 급상승한 14%를 기록하며 강력한 회복세를 보임
 - 조사 대상 603개 기업 중 채용 증원을 예상한 응답은 30%, 감원은 16%, 동결은 54%로 나타났으며, 채용 계획 증가와 함께 감원 예정 기업 비율이 크게 하락(32%→16%)한 점이 반등을 견인함
 - 2026년 상반기 실질 GDP 성장률(5.1%),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3.5%~4.5%), 안정적인 실업률(3.7%) 등 양호한 경제 지표가 기업들의 고용 회복세를 뒷받침함
 - 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 27%)이 AI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수요에 힘입어 가장 높은 채용 의사를 보였고, 금융·보험(21%), 전문·과학·기술(15%), 무역·물류(10%)가 뒤를 이음
 - 연말 특수를 앞둔 호스피탈리티(5%)와 단순 기술직 교체 위주의 제조업(7%)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공공보건·사회복지(-3%)는 유일하게 음수를 기록했으나 전분기 대비 5%포인트 개선됨
 - 홍콩의 고용 전망은 싱가포르(13%)보다 높으나 중국 본토(34%), 베트남(36%), 인도(54%) 등 주요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로 평가됨

〈인바운드 동향〉

□ 홍콩, 2030년 관광 부가가치 40~50% 확대 목표

☞ 메가이벤트·영화·요트 관광으로 체류 연장 및 소비 확대 추진

- 홍콩정부는 첫 5개년 계획(2025~2030)에서 관광 부가가치를 2030년까지 1,260억 홍콩달러로 약 40~50% 늘리고, 비(非)본토 숙박 방문객 비중을 4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시정보고서는 방문객 체류 연장과 소비 확대에 초점을 맞춤
- **(예산)** 그동안 연도별로 추가 배정해 온 플래그십 행사 예산을 상시 예산으로 전환해, 홍콩관광청이 중장기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함. 2026~27 회계연도 홍콩관광청 예산은 정상·추가 예산을 합쳐 16억 6,000만 홍콩달러(약 2억 1,200만 달러)로, 전년도 12억 3,500만 홍콩달러 대비 34.5% 증액됨. 2026~27 예산안은 관광 관련 산업 전반에 약 30억 홍콩달러를 배정했으며, 5개년 계획은 향후 5년간 스포츠 분야 투입 자원도 누적 20% 늘리기로 함
- **(메가이벤트)** 홍콩관광청이 국제예술(2~5월), 중국예술(6~9월), 축제형 메가이벤트(10~2월) 등 연간 3개 테마 시즌을 운영하고, 행사 입장권 소지자에게 상권 할인을 연계하는 '티켓 스텝 경제'(Ticket Stub Economy)를 추진함
- **(영화관광)** 고전 경찰·범죄 영화 장면을 활용해 야시장·식당과 연계한 야우마테이 루트 등 영화 촬영지 테마 관광 루트를 조성함
- **(요트·해양)** 신규 요트 계류시설 확충과 함께 5월부터 홍콩·마카오 요트의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BA) 9개 도시 운항이 가능해지는 등 본토와의 요트 교류를 확대하고, 크루즈 모항 활용도 추진함
- **(다중 목적지 관광)** 홍콩을 해외 방문객의 본토 진입 남부 관문으로 삼아 GBA 등으로의 일정 연장을 유도하고, 미국·캐나다 등 전통 시장과 중동·아세안 등 잠재 시장에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 **홍콩 8월 방문객 546만 명 달성: 팬데믹 이후 월간 최대치 기록**

- 홍콩관광청(HKTB) 발표에 따르면, 2026년 8월 홍콩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546만 명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월간 최대 규모를 달성함
- 2026년 1~8월 누적 방문객 수는 총 3,67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이 중 중국 본토 방문객이 2,870만 명(13% 증가)으로 성장을 주도함
- 권역별로는 8월 중국 본토 방문객이 약 460만 명(8% 증가), 장거리 시장 방문객이 약 29만 명(18% 증가)으로 호조를 보인 반면, 본토 외 단거리 방문객은 항공편 수용 능력 및 유류할증료 부담 등으로 인해 약 40만 명(16% 감소)으로 하락함
- 8월 방문객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제16회 세계화인보험대회(IDA), 홍콩 축구 페스티벌 2026, TME live 국제음악상 등 대형 국제 회의 및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가 꼽힘

□ **홍콩관광청, '할로윈 한 달' 캠페인 개최: 5개 주요 지구 거리 축제 및 무료 교통 지원**

- 홍콩관광청(HKTB)은 기존 할로윈 당일 특정 장소 중심의 행사를 10월 한 달로 확대하는 첫 '홍콩 할로윈 먼스(Hong Kong Halloween Month)' 캠페인을 추진함
- 10월 17일부터 할로윈 당일(10월 31일)까지 3주 연속 토요일마다 센트럴, 카이탁, 란콰이푹, 몽콕, 침사추이 이스트 등 5개 지구에서 각기 다른 테마의 거리 행사가 진행됨
- 센트럴(조명 설치물 및 의상 파티), 카이탁 스포츠 파크(코스프레·공연), 몽콕(공포 테마 미니버스 전시), 침사추이 이스트(DJ 파티 및 마켓), 란콰이푹(거리 행사 및 포토존) 등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됨
- 10월 17일, 24일, 31일 저녁에는 주요 행사장을 연결하는 할로윈 테마 오픈탑 시티버스 및 코즈웨이베아-성완 운행 트램 2대가 운행되며, 코스튬 착용 승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이번 캠페인은 중국 본토에서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된 절기 축제(할로윈

등)를 활용해 방문객을 유치하고 도심 전역으로 관광 소비를 분산시키기 위한 지난 2월 예산안의 관광 전략 일환임

□ **홍콩 '국제 등불 축제' 개최, 한국 진주 실크등 포함 20개국 등불과
침단 로봇 등장**

- 홍콩관광청은 추석(중추절) 시즌을 맞아 코즈웨이베이 빅토리아 파크에서 한국을 포함한 20개국의 3,000여 개 등불과 침단 로봇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국제 등불 축제'를 10월 4일까지 연장 개최함
- '세계 등불 거리' 구역에서는 대한민국 진주시의 대표 문화콘텐츠인 '진주 실크등' 200여 점을 비롯해 브라질, 프랑스, 독일, 태국 등 각국의 이국적인 전통 등불과 문화 설명판을 함께 전시함
- 이와 함께 난징 친화이 무형문화재인 8m 높이의 대형 등불 '수영유광'과 연못 위 7m 보름달·연꽃 조형물, 홍콩 전통 수공예 등불 1,000여 개를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연출함
- 현장에서는 전통 칠공예 부채를 제작하는 로봇 'Hanyue'의 공정 시연과 댄스 로봇 'Galbot ET1'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추석 연휴 기간(9.24.~27.) 동안은 점등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 운영함

<아웃바운드 동향>

□ **캐세이퍼시픽, 중동 정세 악화로 두바이·리야드 노선 운항 중단
2027년 1월까지 추가 연장**

- 홍콩 국적항공사 캐세이퍼시픽(Cathay Pacific)은 중동 지역 내 긴장 고조로 인해 두바이(UAE) 및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여객 노선 운항 중단 기간을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
- 이번 연장 조치는 분쟁 발생 이후 세 번째 연장으로, 기지급된 해당 노선 항공권 소지 승객에게는 일정을 변경하거나 타 노선 우회, 혹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특별 유연성 정책이 적용됨
- 캐세이퍼시픽 화물 부문(Cathay Cargo) 역시 중동 노선 화물기 운항

재개 시점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있으며, 지역 정세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임

- 캐세이퍼시픽은 2월 말 분쟁 발발 후 3월부터 두 노선 운항을 중단했으며, 중단 기간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3월 말 → 5월 말 → 8월 말 → 11월 말 → 1월 말로 반복 연장됨.
- 유가 재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 브렌트유는 7월 초 70달러대에서 9월 초 100달러 안팎으로 반등했고, 항공유도 갤런당 4달러대를 기록함. 캐세이는 8월 1일 할증료를 약 41% 인상해 전쟁 전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며, 10월 1일부로는 필리핀 출발을 제외하고 변동 없음. 중동 영공 우회로 따른 유럽-아시아 노선 운항 시간 증가도 비용 부담 요인임

□ 홍콩인의 광둥지역 의료관광 증가

- 최근 높은 비용과 오랜 대기 시간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치과 치료, 암 치료, 수술 등 광둥성(선전·광저우) 내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찾는 홍콩 주민들이 급증함
- 산후조리원의 경우 홍콩 내 24시간 산후도우미(pui yuet) 고용 비용 (HK\$70,000 이상) 대비 선전 산후조리원(약 HK\$40,000)이 숙박·식사·24시간 아기 돌봄 등 높은 가성비를 제공하여 이용률이 지속 상승 중임
- 주요 암 치료제(Pembrolizumab, Pertuzumab/Trastuzumab 병용요법 등)의 광둥성 내 가격은 홍콩 시장가 대비 절반에서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며, 주요 수술 비용도 홍콩 사립병원 대비 30~50% 저렴함
- 2023년 기준 홍콩 주민의 선전 의료기관 방문 건수는 70만 건을 기록했고, 광둥성 전체 입원 환자는 30,575명으로 2018년 대비 125.6% 증가함
- 홍콩 사립의료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문의의 71%가 진료 환자 감소를 겪었으며, 이 중 약 40%는 환자들이 대만구(GBA) 내 의료 서비스로 이탈한 점을 원인으로 지적함
- 광저우시는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과 17개 지정 병원 네트워크를 연계한 '국제의료관광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역외 환자 유치 및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 조성을 추진 중임

- 전문가 및 환자 권익 단체는 의료비 절감 및 공공의료 부담 완화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의료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의 어려움 및 홍콩 의료기관과의 진단 영상 스펙 미호환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선택을 당부함

□ 홍콩, 2030년까지 글로벌 취항지 240개로 확대 추진

- 홍콩 정부는 수립된 5개년 계획을 통해 현재 220개인 국제공항 취항 도시를 2030년까지 240개로 확대하고, 2026~2030년 사이 매년 10개국 이상(최소 40%는 일대일로 참여국)과 항공 협력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 중남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신흥 시장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과의 운수권 확보 및 신규 노선 개설 협의를 진행 중임(캐세이퍼시픽은 내년 1월 카자흐스탄 직항 개설 예정)
- 2024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40개 항공사가 홍콩발 94개 신규 노선을 개설하였으며, 기존 15개 노선의 운항 편수를 증편함
- 2026년 1~8월 홍콩 국제공항 여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4,430만 명, 운항 편수는 3.5% 증가한 269,900편을 기록했으며, 8월 여객 성장은 중국 본토 및 한국 노선이 견인함
- 캐세이퍼시픽 그룹(HK익스프레스 포함)의 8월 여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36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월간 최고치를 기록함
- 8월 화물 물동량은 유럽연합(EU)의 소액 화물 면세 폐지 정책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 1~8월 누적 화물 처리량은 334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함

※ 출처 :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스탠다드, 블룸버그 등 현지 언론매체

홍콩정부 보도자료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206/01.htm?fontSize=1>

홍콩관광청 보도자료 <https://www.discoverhongkong.com/kr/index.html>

싱가포르, 대만, 태국, 일본 NTO 발표자료

Hong Kong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Wing On, EGL 등 홍콩 주요 여행사 모니터링 등